

지역 소식통

부안 위도면, 서해웨리호
참사 추모 위령제 거행

지난 10월 10일 부안군 위도면 진리 연못 끝에 위치한 서해웨리호 참사위령탑에서 그 때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292명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제29주기 서해웨리호 참사 추모 위령제가 거행됐다.

서해웨리호 참사사고는 1998년 10월 10일 수백명의 승객을 태운 서해웨리호가 위도 파장급항을 출항해 격포항으로 향하던 중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에 중심을 잃고 순식간에 전복되면서 승객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이다.

올해로 29주기를 맞고 있는 추모 위령제는 당시 참사로 숨진 원혼들의 명복을 받고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 하기 위해 사고해역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위령탑 현지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유가족 위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지사보훈, 제5기
협의회계획 심의회의 개최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권익현, 민간위원장 이훈섭)는 최근 5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사회보정의 각 분야 민·관 전문가인 대표협의체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돌봄, 교육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함하는 4년(’23~’26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부안군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군민중심의 복지부안을 목표로 돌봄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 등 8대 추진전략과 주거취약층년 주거비용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등 22개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

이학수 정읍시장, 국가예산 확보 위한 선제적 사업발굴 강조

이학수 시장이 11일 오전 열린 영상 간부회의에서 2024년~2025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꼼꼼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선 8기 시장 방황에 맞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과 신규사업 준비에도 철저한 노력과 준비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구절초 꽃축제와 정읍천 빛 축제를 비롯해 가을철 본격적인 단풍 시즌을 맞아 생활 방역과 숙박, 음식, 교통 등에 신경 써 관광객 불만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더불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행복나눔 공유냉장고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유냉장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시민 중심의 건강한 나눔문화와 공유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양심에 따른 운영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읍시청 제15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기간을 맞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정읍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22 정읍시 출향인 환영 행사'를 열었다.

지역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

정읍 출향인 '제15회 구절초 꽃축제' 맞아 고향 방문

정읍시가 '제15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기간을 맞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정읍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22 정읍시 출향인 환영 행사'를 열었다. 시정읍시예향운동본부(이사장 김적우)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서울(회장 김호석), 부산(회장 최두표), 성남(회장 박홍용), 인천(회장 송일영) 지역의 출향인 210여 명이 참석했다. 환영 행사는 애향운동회장 낭독과 장학금 기탁에 이어 환영사와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고향에 대한 사랑과 지역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출향인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서울(회장 김호석) 500만원, 성남(회장 박홍용) 200만원, 부산(회장 최두표)에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적우 애향운동본부장은 “향우회원들의 고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자주 방문해 정읍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정읍의 발전과 성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학수 시장은 “고향을 아끼는 깊은 마음으로 전달해주신 장학금은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정읍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힘과 자량이 될 수 있도록 정읍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영사를 마친 출향인들은 구절초 지방정원을 찾아 운산을 새하얗게 물들인 구절초를 감상하며 절정에 이른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 개원 100일

군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해결에 앞장

제9대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개원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정호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전 의원이 끊임없는 학습과 업무연찬, 화합과 소통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의정 목표로 변화와 혁신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왔다.

의원들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부터 당산서 세미나와 자체교육을 실시해 개원에 대비했으며, 개원 후에는 의원간담회와 의정연수 등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또한 임시회와 정례회 등 총 2회의 회기를 운영해 의원발의 5건(△이산석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의회 자체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조규철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차남준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오세환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 결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진반을 점검하고, 5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도 제시했다.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는 지난 100일 동안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정호 의장은 “앞으로도 항상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을 펼치겠다”며 “우리 고창군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올바른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의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성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미주한인회장 면담... ‘세계유산도시 고창홍보’

2023년 세계유산 고창 방문의례’를 추진중인 심덕섭 고창군수가 미주한인총연합회와 면담을 갖고 국제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일 심 군수는 고향을 찾은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비롯한 미주한인회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미주한인회의 고창 방문은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됐던 ‘세계 한우회 고창방문의날(10월 3~5일)’을 맞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호남향우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성사됐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1903년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한인친목회를 계승



해 1977년 창립했다. 미국 각 지역의 한인회는 170여개로 구성되고 1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270만 재미동포의 권익보호와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다. 심덕섭 군수 “고창은 많은 문화유산

과 고창 갯벌, 탐사르온곡습지 등 다양한 천연자연이 어우러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다”며 “2023년 세계유산 고창방문의 해에 고창군이 미주지역 내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인회 총회장은 “세계한우회 고향방문의 날’을 맞아 고창군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미주지역에 고창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창군은 중국, 일본 등 4개국 9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성 기자

2022년 부안군 양성평등 한마음대회 개최

2022년 양성평등 한마음대회가 부안여성단체협의회(회장 하순례) 주관으로 11일 부안군 실내체육관에서 각 읍면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군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식전행사인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 대한 군수 국회의원, 의회위원장 표창장이 수여되고 체육대회 및 장기 자랑, 경품추첨 등 모처럼 13개 읍·면 여성단체 회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한마음대회 개막사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 한마음대회를 맞이하여 13개 읍면 모든 여성단체회원들의 운기와 열정이 차별과 편견과 불평등이 없는 양성평등의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협의회 하순례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만남의 장을 통해 소통하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며 양성평등의 차이를 꾸준히 좁혀나가자고 하였고, 오랜만에 만나는 지리인만큼 서로 웃고 서로 위로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